

전남도, 광양만권 K-배터리 원료 중심축 육성한다

전라남도가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추진하고 있다.

세계 배터리 산업의 경쟁이 생산 규모를 넘어 원료·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구축으로 옮겨가는 흐름 속에서, 전라남도는 광양만권을 '원료 거점'으로 키워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광양만권은 ▲원료·소재 산업 기반 ▲항만·물류 인프라 ▲산업단지 집적 등 공급망 관점의 강점을 갖춘 지역으로,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공모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실행가능성(인프라·투자·인력·거버넌스)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원료 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한 권역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공모 신청서에 담아 유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유치 전략을 다듬기 위해 2025년 12월 22일 국회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포럼'을 열어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포럼에서 제시된 제안을 바탕으로 공모 신청서를 보완하고, 발표평가(PT·예상 질의응답 등) 준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화단지 경쟁력의 또 다른 축인 인재 기반도 강화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11일 도청에서 광주·전남권 10개 대학과 '이차전지 전문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했다. 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대응 역량 집중 원료 확보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 생태계 구현 전략 구체화



학의 교육·실습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취업'으로 이어지는 인력 파이프라인을 체계화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지역 산업 현장에서 활약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수의 해양용 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광양의 차세대 이차전지 원료(핵

심소재) 검증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술지원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데이터 수집·표준화와 원료 분석·평가 등 원스톱 검증 체계가 갖춰지면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상용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오는 27일까지 특화단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

고, 3월 발표평가 대비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광양만권의 기반과 지역 역량을 모아 기업에는 안정적 공급망 환경을, 지역에는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기회를 만들 특화단지 유치를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선호 기자

광주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전문강사로 양성 우수 교육생 선발해 신규농업인 교육 강사로 현장 투입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전문 역량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 강사 양성교육'에 참여할 지역 농업인 15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농업인 강사 양성교육'은 강의계획 작성부터 연설(스피치) 기술, 시청각 자료(프레젠테이션) 작성을 포함해 전반적인 강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과 시청각 자료 제작 등 실습 위주 교육을 포함해 교육생들이 농업 분야 강의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교육은 3월부터 매주 1회씩 총 10회(40시간) 진행된다. 교육은 ▲다양한 강의기법 강의 ▲발표자료 작성 실습 ▲개인별 평가(피드백) ▲강

의 시연 평가를 포함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을 마친 후 우수 교육생을 선정해 신규농업인 교육 강사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신청은 교육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yhcvision@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gwangju.go.kr/agri/)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강사로서 역량을 키우며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생들이 농업이론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강의 역량과 현장 적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일 기자

광주 수출 '훈풍', 내수는 한겨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전남은 경기 전반 부진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 부문과 내수 경기 간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광주는 제조업과 수출이 비교적 선방했으나 소비와 건설 등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했고, 전남은 생산·소비·투자 전반에서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2월 발표한 2025년 12월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했다. 출하도 전기장비를 중심으로 3.4% 늘었고, 수출은 전자·전기과 자동차 등 기계류가 크게 증가하면서 27.6% 늘어났다.

반면 내수 회복세는 미약했다.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5.5% 줄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2026년 1월 112.0으로 전년 대비 0.7포인트(p)소폭 하락하며 소비 회복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했다.

건설 부문에서는 착공과 허가 면적 차이가 뚜렷했다. 12월 광주 건축 착공 면적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748.1% 급증했으나, 건축허가 면적은 76.2% 감소했다.

미분양 아파트는 1404가구로 전월과 비슷했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781가구로 전월(474가구) 대비 크게 늘었다.

전남은 전반적으로 경기 하강 흐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생산은 화학제품과 1차 금속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 감

소했고 출하도 1.5% 줄었다. 수출은 선박 등 기계류와 석유제품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으나 소비는 크게 위축됐다.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는 13.9% 감소해 광주보다 낙폭이 컸다. 취업자 수 역시 9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줄었고,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업 부진이 고용 감소를 이끌었다. 실업률은 6.4%로 전년 대비 0.6%p 상승했다.

전남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회복세가 미약했다. 2025년 12월 전남지역 기계류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으나, 기업들의 체감 투자심리는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1월 제조업 설비투자 BSI(실적지)는 74로 전월보다 1p 하락해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며 투자 위축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건설 부문에서도 실제 투자는 부진했다. 12월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26.7% 감소해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 모두 위축됐다. 이는 지역 건설 경기의 체감 부진을 반영한다. 다만 건축허가면적은 65.1% 증가해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는 광주 1.8%, 전남 2.1%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음식·숙박, 식료품과 외식·서비스 물가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종필 기자

전남도, 미래 100년 SOC 국가계획 반영 총력

고속도·고속철·국지도 등 올해 41건 71조 규모 현안 집중

합 이슈와 맞물려 고속도로망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특히 영암-광주, 진도-영암 고속도로는 오픈 AI-SK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삼성 SDS 국가 AI컴퓨팅센터, LS그룹 해상풍력 설치장만 등 첨단산업과 연관한 필수 기반 시설로서 충분한 당위성이 확보됐다.

또한 세종, 광주, 화순을 거쳐 고흥까지 이어지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의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원활하게 할 중요한 교통망이다.

전라남도는 2024년부터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통해 첫 현안 과제로 호남권메가시티 고속도로를 선정하고, 상호 협력하며 공동으로 건의활동을 펼치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

축계획에 8개 사업, 41조 4천627억 원 규모를 건의 중이다. 전남지역 철도 인프라 강화와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 중 호남고속선·경전선 연결선은 전남 동부권과 경남권 지역민의 무안국제공항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동·서 순환철도망 구축 일환이다.

또한 고흥-대전 우주고속철도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와 함께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필수 교통망이다. 목포에서 군산을 연결하는 서해안철도는 서남권 해양산업과 물류를 연결하며, 전남도의 해상풍력과 AI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노선이다.

국도·국지도 분야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에 20개 사업, 3조 4천억 원이 반영됐으며, 16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는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그중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사업이 신속 예타 대상으로 선정·통과되면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에 변경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전남 주요 사업을 추가 반영할 여력을 확보하는 등 이중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나머지 15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관련 시군과 협조해 정책성평가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올해는 미래 전남 100년을 견인할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사업별로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되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